



담양 대담미술관 '가경(家景)/담양(潭陽)' 전



태해신카르마프리무용단의 '샤인아웃, 휘'

# 가을 길목...수요 '문화성찬' 놓치지 마세요

우연히 영화관을 찾았는데 할인 카드도 없이 영화를 할인받았다면 그날은 그날의 마지막 수요일일 것이다. 이날은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전국에 있는 문화 시설들이 할인 혜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즐거움을 더해준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찾아오는 문화 보너스 '문화가 있는 날'을 놓치지 마세요.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벌써 8회째를 맞았다. 27일, 8월의 문화가 있는 날에는 어떤 다양한 문화혜택들이 지역민을 기다리고 있을까.

담양 대담미술관에서는 이날 오후 7시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있는 우상린(대만)과 윤수정(한국) 부부의 전시 '가경(家景)/담양(潭陽)'전과 '기억, 집을 짓다(Memory, Build a house)'전이 오픈한다. 전시는 9월14일까지다. 전시 오픈과 함께 작가와의 만남 행사로 우상린과 함께 하는 '설치미술 및 퍼포먼스' 이야기가 함께 진행된다. 담양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두 작가의 예술적 관점을 비롯해 한국과 대만의 문화적 차이, 국적이 다른 예술가들이 느꼈던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갈 예정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 공연되는 민간단체우수공연초청 '샤인



**영화관·공연장 등 가는 곳마다 이벤트 행사**  
**담양 대담미술관 전시 오픈 '작가와의 만남'**  
**유·스퀘어 문화관 '찌찌한 로맨스' 40% 할인**

아웃, 휘'를 40~50% 할인된 성인 6000원, 청소년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태해신카르마프리무용단이 제작한 이 공연은 지난해에 이어 한국문화재단연합회 올해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풍요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결실을 기원하는 농악을 현대적인 무대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세련되고 화려한 춤사위와 함께 몽환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공연이다.

이날 문예회관 소극장에서는 같은 시간 남도소리상설무대 '2014 빛고를 곳쟁이전'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호남우도농악 길놀이 및 판굿, 설장구, 부들상모놀이, 태평소시나위 등으로 무대가 꾸며진다. 일반석은 50% 할인된 1만원에 관람가능하고, 소외계층은 무료로 초청된다.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컨템포러리 아리랑콘서트 '퓨전국악공연 아리랑! 우리랑!'이 무료 공연된다. '아리랑! 우리랑'은 역사의 고난을 이겨내고 새 희망을 꿈꾸게 했던 아리랑을

소재로 여섯 가지 공연예술 장르가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연으로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 단원과 함께 우리지역 출신 영화배우 박철민씨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특히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60여명의 시민들은 '아리랑 시민합창단'과 '정소년 셔플댄스단'을 구성해 참여한다.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는 오후 7시 '아이스케이프4 : 대륙이동설'이 무료 상영되고,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에서는 오후 7시30분 상설공연 '애꾸눈 광대'가 무료공연된다. 또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김시내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무대에 오른다. 첼리스트 김시내씨는 베이스리스트 최광문, 피아니스트 조숙경과 함께 소풍과 바그너를 아름다운 재즈 선율로 연주한다.

문화가 있는 날 야외 음악회를 공연하고 있는 유·스퀘어 문화관은 27일 오후 6시30분 야외무대에서 '제3회 유·스퀘어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재즈 앙상블 '최준밴드'

(최준·김선빈·고지운·전사무엘·장성훈)가 초대됐다. 스티비 워더, 프랭크 시나트라, 피노키오의 음악을 들려준다. 또 이날은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열리고 있는 '찌찌한 로맨스'와 사진전 '점핑 워드 러브'를 각각 4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이날 오후 8시까지 연장 개장하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오후 6시부터 '남도문화전V-고흥'을 주제로 한 토크 뮤지엄 행사가 열린다. 천혜의 자연과 우수항공 등 첨단이 공존하는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통시대적으로 정리한 전시를 학예사의 해설로 만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도 이날 오후 8시까지 개장한다. 평일 광주시립미술관을 방문하기 힘들었던 직장인들에게는 지난 8일부터 열리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1980 그후'를 관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특히 독일을 대표하는 여류판화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과 '아Q정전'을 쓴 루쉰의 판화를 만날 수 있다. 이밖에 롯데시네마(수원·광주·충장로점)와 메가박스(점만·광주·롤러버스 상무점)에서는 오후 6~8시 상영되는 영화를 5000에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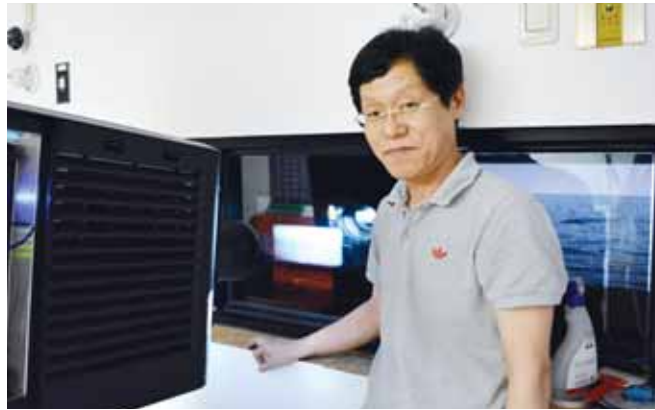
## 광주 영상기술 신증인 김영기씨

### 81년 신동아 극장서 첫 발 '아바타' 3D상영 기억에 남아 광주국제영화제서 관객과 재회

30년 넘게 광주 지역 극장에서 영상기사로 일해온 김영기 롯데시네마 총장 겸 영상실장(55)은 광주 영화계를 오랫동안 지켜 온 인물이다. 그는 광주에 새로운 극장이 생길 때마다 개관 멤버로 영사기를 돌렸고,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할 당시 광주국제영화제에도 참여했다. 오는 28일부터 9월1일까지 롯데시네마 총장 겸 영상실장으로서 열리는 광주국제영화제 상영작들은 모두 김 실장의 손을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오랜만에 영화제 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는 김 실장에게서 극장 영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실장이 영상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81년이었다. 지금은 없어진 동아 극장이 첫 일터였다. 처음에는 영화관 간판그리는 일을 시작했다. 대한극장과 중앙극장에서였다. 이 때 선배들 어깨 너머로 영사 기술을 배우며 기사 자격증을 뒀고 자연스럽게 영사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에 싫증이 나 한 때 영화관을 떠났었다. 대구그룹에 입사해 14년간 근무하다 2002년 다시 영사실로 돌아왔다. 그는 많은 극장의 '오픈 멤버'였다. 밀리오레 시네마, 하미시네마, 상무CGV, 목포 CGV의 개관을 함께했다. 그에



김영기씨

게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하던 시절은 추억으로 남았다. "옛날에는 필름 내새만 말고 소리만 들어도 중국 영화 필름인지, 미국영화 필름인지 알았다. 중국 필름은 약간 뽀뽀해서 들어가는 소리가 크지만 미국 필름은 부드럽다. 국산영화는 이도저도 아니고, 5~6개 필름 이루어진 필름 순서를 다르게 틀어 영화가 뒤죽박죽 된 적도 있었고, 추억이 참 많았다."

무거운 필름을 들 필요도, 필름을 만지다 기를 때를 몰릴 일도 없지만 버튼 하나로 진행되는 디지털 영사가 김 실장은 더 힘들다고 한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다. 필름으로 상영할 때는 영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또 필름에 문제가 있을 땐 그 부분만 딱 잘라내면 됐고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디지털은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영사 기사 생활 3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영화 '아바타'로 시작한 3D 상영을 꼽았다.

"1980년대에도 입체 상영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다. 주로 중국 영화를 중심으로 상영됐었다. 렌즈를 조정해가면서 상영을 하는 거다. 3D가 등장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있다는 김 실장은 "문근영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초창기에는 광주영화제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 규모가 축소된 게 아쉽다"며 "영화제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영화제축이 준비한 좋은 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예술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장 제도적 장치 필요"

### 광주시민단체협 등 '세월오월' 논란 성명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예총,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공동으로 25일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논란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외견상 봉합됐지만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문화민주주의

의가 파괴된 지금의 상황을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광주비엔날레가 제안한 시민대토론회를 취소해야 하고, 광

주시장과 광주비엔날레 이용우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개해명과 함께 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용우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 본 행사를 치른 후에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대표이사는 "작가가 작품을 가진 철회했기 때문에 시민대토론회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사퇴 시점에 대해서 반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본 마음 가득담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세요!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